

손해사정사 시험 - 보험계약법 - 1쪽

1. 상법 제4편(보험)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분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를 적용하는데 실익이 있다.
- ② 공제제도는 실제로 보험사업과 같은 기능을 하는 유사 보험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무역보험은 민영보험이 아닌 공영보험이고, 특별법인 무역보험법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법 제4편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④ 선주상호보험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상호보험이므로, 보험 관계의 성질에 반하거나 특칙이 없는 한 상법 제4편이 준용된다.

2. 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통보험약관 그 자체는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 ② 계약당사자가 보험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을 하였다면 그 개별 약정은 보험약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 ③ 보험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종전 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을 도중에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그 약관변경 사실 및 내용의 고지없이 다시 체결한 보험계약은 종전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보험약관이 인가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보험약관의 유효성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 ②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없다.
- ③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그 위반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당해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본다.
- ② 보험계약은 별도의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낙성계약으로 볼 수 없다.
- ③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보험계약자가 청약 이후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낙부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이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 ② 보험계약의 당사자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다.
- ③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보험계약자가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④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며, 보험료수령권 및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다.

6. 상법상 보험계약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③ 보험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는 약관 내용과 같이 설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④ 승낙 전 보험보호의 경우(상법 제638조의2), 청약을 거절 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7.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법은 고지의무의 당사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명시하고 있다.
- ② 고지의무의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도 해지할 수 없다.
- ③ 보험계약체결시 고지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체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보완이 가능하다.
- ④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사항과 관련된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에 대한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게 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8. 상법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 ② 자동차임대업자가 피보험차량을 지입차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상운송에 제공하도록 허용한 것은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질문표가 아닌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④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하여 체결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는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보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9.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대여업자가 무면허운전자에 대하여 위조된 면허증의 복사본을 제시받고 그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
- ② 중과실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경우로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 ③ 피보험자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다.
- ④ 고의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상법상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 대납을 약정하였더라도 보험대리상이 보험자에게 대납을 하기 전까지는 보험료 지급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④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11.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
- ②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보험설계사가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사실은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12. 상법상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미납된 계속보험료에 대한 납입 최고 후 최고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때
 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
 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
 마.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13. 상법상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보험자인 타인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특정되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피보험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특정되도록 정할 수는 없다.
- ②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④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4.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 ②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에 한하여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④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겼는데 이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15. 다음의 사례에서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보험가액 20억원의 가옥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6억원, B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4억원, C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0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가옥이 화재로 인하여 전소하자 甲은 위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다.

- ① 甲이 C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甲과 C회사 사이의 보험계약만 무효가 되므로, C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 ② 甲이 B회사에게 20억원을 청구한 경우, B회사는 일단 20억원을 보상하고 A회사와 C회사에게 각각의 부담 부분인 8억원과 5억원을 구상할 수 있다.
- ③ 甲이 A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B회사와 C회사가 7 : 5의 비율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④ B회사가 파산하여 무자력이 된 경우, 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A회사와 C회사는 각각 16억원과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16.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초과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 ② 초과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초과보험 여부 및 보험계약자의 사기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④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7. 상법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손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손해방지비용에는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배상책임 보험에서 추가적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공사 비용 및 누수 정밀검진 비용도 이에 해당한다.
- ④ 여기서 손해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의 결과로 생기는 손해는 물론이고, 보험자의 구상권과 같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한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까지 포함된다.

18. 손해가 제3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다음의 보기 중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
- 나.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다.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
- 라. 건물 소유자의 화재보험에서 그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 마. 건물 소유자의 화재보험에서 그 건물의 임차인
- 바.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를 위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차인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9.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 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② 보험 목적의 양도란 보험 목적이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해 물권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이나 합병처럼 포괄승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 목적의 양도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험이 변경증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 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이러한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집합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그 물건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에 현존 하더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보험자는 소방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

21. 상법상 운송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나. 보험가액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면,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및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다.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 라.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마.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경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상법상 적하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기간은 하물(荷物)의 선적에 착수한 시점부터 개시하지만, 출하지를 정한 때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 ② 하물(荷物)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은 그 계약이 성립되고 운항을 시작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 ③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선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예약으로서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3. 상법상 해상보험에서 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전손(全損)으로 추정한다.
- ②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하여 위부를 해야 하지만,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부할 수 있다.
- ③ 선박이 보험사고로 심하게 훼손되어 그 수선비용이 수선 후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그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라도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있다.
- ④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4. 상법상 선박보험계약의 종료사유와 관련하여,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선박을 양도할 때
- ②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
- ③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 ④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25. 상법상 해상보험에서 위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하거나 또는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경우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6. 상법상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서 기재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보험사고의 성질
- 나. 보험가액
- 다. 무효와 취소의 사유
- 라. 보험기간
- 마. 피보험자의 주소
- 바. 동산 화재보험에서 그 동산이 존치한 장소의 상태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상법상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③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 이 약관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 ④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확정의 통지를 받은 때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운 겨울에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잠을 자다가 뒷좌석 부근에서 발화된 화재로 사망한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주행 중인 자동차가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는 운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간이침대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중 이를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 ④ 인부가 정차 중인 화물차량에 통나무를 내려놓는 충격으로 인하여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상법상 자동차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④ 피보험자동차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0.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채권자인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 ②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인 신용보험과 구별된다.
- ③ 보증보험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공모하였다든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자 면책규정(상법 제659조)은 보증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31.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자신의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고 동료 직원으로 하여금 배우자를 대신하여 서명하게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니다.
- ②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를 유효하다.
- ④ 보험계약자가 15세 미만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있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32. 상법상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후 보험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지 않는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 ③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 ④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사고 발생을 안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3.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권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책임보험에서 구상권을 가지는 공동불법행위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보증보험은 보증의 실질을 갖기 때문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보험자는 공동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48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재보험계약의 경우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보험자대위권을 갖고 있을 때,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대위권이 재보험자에게 이전한다.
- ④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자대위권을 가지지 않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4. 상법상 생명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고의행위가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에서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 ③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 ④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에 의해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

35. 상법상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였고 보험계약자도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36. 상법상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체보험은 생명보험만 가능하므로 단체상해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단체보험 중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타인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그 일부 구성원들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은 단체협약, 정관 등 형식을 불문하나, 당해 보험에의 가입과 관련 하여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37. 상법상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최근 판례에 의함)

- ①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 ②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한 후 대위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③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 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④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38. 상법상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 ②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서 사망한 경우, 이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
- ③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15세 미만의 자녀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④ 자동차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격은 상해보험이므로,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39. 상법상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래의 사고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 ② 피보험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구토를 하여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여 사망한 경우 사고의 외래성이 인정 된다.
- ③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면 보험수익자의 지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④ 사고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및 사고와 신체 손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40. 상법상 질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질병보험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조문을 준용한다.
- ② 질병보험의 보상방식은 정액 보상방식과 비정액 보상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 ③ 질병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
- ④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야기하였다면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